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2014년
5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 자연재난 | 강풍, 황사 피해현황 및 전망
- 사회재난 | 놀이시설 안전사고, 농기계 안전사고, 산악사고 발생추이 및 전망
- 소방활동 | 화재분석 및 구조구급 통계분석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해역 지진
- 목포 신안 실크밸리 APT공사장 도로침하
-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 S-OIL 원유 누출사고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 보령 너울성 이상고파
-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화재
- 인천 백령도 해역 지진

기획특집

- 엘니뇨와 라니냐
- 기상예보 용어

< 5월의 재난대비 기간 >

① 봄철 산불조심기간('14.1.29 ~ 6.8)

※ 설 연휴 및 6.4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고려하여 법정기간(2.1~5.15)에서 조기·연장 실시

②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기간('14.3.1 ~ 5.31)

③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4.5.15~'14.10.15)

5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요약)

5월은 강풍, 황사 피해가 우려되며, 놀이시설 안전사고, 농기계 안전사고, 산악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과 관계기관에 알려 사전대비 조치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기상 전망 및 사회적 여건

- 5월은 날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이 시작되므로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가정의 달로 행사가 많고 놀이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으로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

□ 과거 재난발생 상황분석

< 자연재난 >

◆ 5월은 연중 자연재난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달임

- 최근 10년('03~'12년)간 5월에 2회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연중 발생횟수가 가장 적었으며 재산피해도 9억원으로 연중 가장 적었음

* 최근 10년간 총 156건의 자연재난 발생, 426명의 인명과 11조 5,561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2회의 자연재난은 강풍으로 5월은 봄철 바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황사도 많이 관측되고 있음

※ 황사특보는 연중 2번째, 강풍은 6번째, 호우는 5번째로 많이 발표됨

가. 강풍

- 최근 10년('03~'12년)간 5월중 강풍 2회로 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 최근 10년간 총 35건 발생, 12명의 인명피해와 1,35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세부 피해사례는 '06년 5.4~5.7일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에 호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침수 20ha를 포함 7억원의 재산피해 발생하였고,

※ 순간 최대풍속(m/s) : 흑산도 30.7, 통영 25.3, 고산 24.4, 진도 23.4, 울릉도 22.5

○ '07년 5.11~5.14 강풍으로 경기지역에 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순간 최대풍속(m/s) : 동두천 24.7, 문산 18.8, 이천 13.6

⇒ 강풍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 대책 추진

나. 황 사

○ 평년('81~'10년) 5월에 총 1.0일 발생하였으나, 최근 10년 ('04~'13년)간 1.2일로 증가하였음

○ 세부 피해사례는 '11.5.1~4일 기간에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흑산도에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됨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유관기관 간 황사 관측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운영 필요

< 사회재난 >

※ 사회재난 분석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개정·시행('14.2.7) 이전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사고 등 인적재난을 대상으로 분석함

◆ 최근 5년('08~'12년)간 5월 중에는 127,879건(8.9%)의 사회재난이 발생

-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고와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등에 대한 예방활동이 요구됨

※ 전체 144만여건의 사회재난(사고) 발생

가. 놀이시설 안전사고

- 최근 4년('09~'12년)간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432건이 발생하여 357명(사망 4, 부상 353)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5월중 71건(16.4%)이 발생하여 연중 가장 많은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 발생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 224건(51.9%), 안전시설 미비 및 개인 질환이 각각 19건(4.4%) 등으로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원인임
- ⇒ 놀이시설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화

나. 농기계 안전사고

- 최근 4년('09~'12년)간 4,065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4,012명(사망 354, 부상 3,658)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월중 514건이 발생하여 연중 2번째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 ※ 영농기인 봄철과 농작물 수확기인 가을철에 많이 발생, 최다 발생시기로는 봄철(3~5월)은 5월이 514건(12.6%), 가을철(9~11월)은 10월이 603건(14.8%)으로 가장 많음
 - 발생 원인은 운전부주의 1,922건(47.3%), 안전수칙 불이행 847건(20.8%), 정비불량 166건(4.1%) 등이며, 도로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 농기계 안전점검·정비, 운전자 안전교육, 등화장치 부착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홍보 강화

다. 산악사고

- 최근 5년('09~'13년)간 20,001만명의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1,740명(사망 110, 부상 1,630)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5월중 2,316만명이 방문하여 163명(사망 12, 부상 151)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발생 원인은 사망자의 경우 신체결함 45명(41.3%), 추락 39명(35.8%), 익사 12명(11.0%) 순이고, 부상자의 경우 골절·상처 1,151명(70.6%), 탈진·경련·저체온 479명(29.4%) 순임
- ⇒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산로 위험요인 제거, 소방력을 활용한 등산목지킴이 활동 및 대국민 안전산행요령 홍보 강화

라. 화 재

- 최근 5년(‘09~‘13)간 217,23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418명(사망 1,243, 부상 7,175)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5월중 평균 3,689건이 발생하여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전월 4,223건에 비해 534건(12.6%) 감소하였음
- 화재 발생원인은 부주의 1,815건(49.2%), 전기적요인 811건(22.0%), 원인미상 363건(9.8%) 순임
- ⇒ 봄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 화재 안전수칙 홍보·교육 강화 및 야외 쓰레기 소각금지 등 소방안전대책 집중 추진

〈5월의 주요재난사례〉

- ◆ 2008년 5.4. 보령 기상해일
 - 기상해일로 인해 방파제 및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과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23명의 인명피해 발생(사망 9, 부상 14)
- ◆ 2012년 5.5.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화재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통로가 미로처럼 되어 있는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참사로 이어진 사건. 인명피해 14(사망 9, 부상 5)
- ◆ 2013년 5.18. 인천 백령도 해역 지진
 -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재산 및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 ※ 1978년 국내 지진관측 이래 7번째로 큰 지진

Contents

1.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1
2. 5월 재난발생현황 분석	
(1) 자연재난	6
(2) 사회재난	10
(3) 소방활동	18
3.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1)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해역 지진	21
(2) 목포 신안 실크밸리 7차 아파트 공사장 도로침하	22
(3)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내 S-OIL 원유누출사고	23
4.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1) 보령 너울성 이상고파	24
(2)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화재	25
(3) 인천 백령도 해역 지진	26
5. 기획특집	
(1) 엘니뇨와 라니냐	27
(2) 기상예보 용어	33
6. 주요 언론보도 사항	
(1) 금년('14년) 4월 언론보도 사항	37
(2) 전년('13년) 5월 언론보도 사항	44
7. 재난관리 정보마당	
▷ 강풍 대비 행동요령	54
▷ 황사 대비 행동요령	55
▷ 놀이기구별 안전요령	58
▷ 농기계 안전사고 요령	60
▷ 산악사고 요령	63

1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기상전망

I 5월 기상전망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이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날씨 전망

- (상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중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하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온 및 강수량

구 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5월 상순	평년(15~18℃)보다 높겠음	평년(23~73mm)과 비슷하겠음
5월 중순	평년(15~19℃)보다 높겠음	평년(24~66mm)보다 적겠음
5월 하순	평년(17~20℃)과 비슷하겠음	평년(20~51mm)과 비슷하겠음

II 3개월 기상전망

5월은 주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이겠으며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음. 6월은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음. 7월은 흐린 날씨가 많겠음

☐ 날씨 전망

- (5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이겠으며,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7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기온 및 강수량

구 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5월	평년(16~19℃)보다 높겠음	평년(70~190mm)과 비슷하겠음
6월	평년(19~23℃)보다 높겠음	평년(106~268mm)보다 적겠음
7월	평년(23~26℃)과 비슷하겠음	평년(187~397mm)과 비슷하겠음

IV 최근 5월 특이기상

■ 고온현상

【2009년 5월 상순】

- (기상개황)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 편차(℃) : 평균기온 +2.2, 평균 최고기온 +3.7
- (주요피해) 모기가 대량 번식되어 극성을 부렸음

■ 저온현상

【2010년 5월 하순】

- (기상개황)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저온현상이 나타나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
※ 평균 최고기온 편차(℃) : -3.0
- (주요피해) 동해 연안의 수온이 낮아져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고랭지 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2008년 5월 중순】

- (기상개황)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는 가운데, 상층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
※ 편차(℃) : 평균 최저기온 -2.4(1위 1981년 -2.6)
- (주요피해) 저온현상과 서리로 인해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음

■ 호 우

【2010년 5.18】

- (기상개황) 저기압이 통과하는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일강수량(mm) : 보성군 189.5(5월 극값), 창원 121.0, 남해 104.0, 진주 100.0 등

【2008년 5.28】

- (기상개황)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일강수량(mm) : 거제 157.5, 통영 130.5, 진도 123.0 등

【2003년 5.7】

- (기상개황)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일강수량(mm) : 홍천 128.5(5월 극값), 영월 83.0(5월 극값), 울릉도 115.5, 부산 105.0 등

건 조

【2005년 5월 하순】

- (기상개황)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고, 우리나라 남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어 1973년 이래 강수량이 가장 적었음

※ 평년대비 강수량 1%

- (주요피해) 산간지역에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었음

황 사

【2011년 5.1~4】

- (기상개황)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황토고원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음

※ 최고농도($\mu\text{g}/\text{m}^3$) : 흑산도 1,025, 고산 731, 진도 662 등

- (주요피해) 드러나는 피해는 없었으나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2008년 5.29~31】

- (기상개황) 고비사막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으며, 기압계의 흐름이 느려 황사가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 최고농도($\mu\text{g}/\text{m}^3$) : 관악산 1,059, 백령도 967, 천안 994 등

▣ 사회적 여건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증가가 예상됨

● ‘가정의 달’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놀이공원 안전사고 우려

- 어린이 날 행사 등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 및 놀이시설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 각종 봄철 지역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

● 영농기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기계화 경작 보편화로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 및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증가 우려
- 겨우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농기계의 정비 불량 및 약해진 지반으로 농기계 운행 중 전복 등 안전사고 위험 증대
- 야간 주행중 후방에 야광반사경 등 안전장치 미부착 등으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위험 증가

●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석가탄신일(5.6) 등 공휴일 및 주말을 활용한 산행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
- 산나물, 약초 채취 등으로 인한 산악 안전사고 우려
- 음주 산행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등 위험 증가

2 5월 재난발생현황 분석

▣ 자연재난

I 자연재난 분석

5월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5.15~10.15)으로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기상상황 분석

- 최근 10년('04~'13년)간 월별 기상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5월에는 특보 횟수가 666건으로 연중 3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호우, 풍랑, 강풍이 각각 205건(31%), 184건(28%), 169건(25%)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건조, 황사 등의 기상특보가 발표됨

【최근 10년('04 ~'13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 기상청】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125	1,401	1,066	1,265	1,103	666	654	2,193	2,078	1,016	527	1,005	1,151
대설	1,467	475	294	204	13	-	-	-	-	-	1	83	397
풍랑	3,598	409	337	419	382	184	127	174	241	268	277	453	327
강풍	2,402	205	211	325	370	169	71	149	148	124	145	293	192
한파	404	167	53	28	-	-	-	-	-	-	7	21	128
건조	812	138	138	148	171	56	-	-	-	-	7	75	79
황사	246	-	15	81	51	52	-	-	-	-	-	26	21
호우	4,210	7	18	60	116	205	427	1,544	1,281	424	67	54	7
태풍	450	-	-	-	-	-	14	89	140	184	23	-	-
폭염	501	-	-	-	-	-	11	230	247	13	-	-	-
해일	35	-	-	-	-	-	4	7	21	3	-	-	-

☐ 자연재난* 발생현황

* 재난발생으로 국비 또는 지방비 등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 최근 10년('03~'12)간 5월에는 2건의 강풍피해(피해액 9억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가 없었으며, 이는 월별 기준으로 연중 가장 피해가 적은 것임

※ 최근 10년간 총 156건 발생, 426명의 인명피해와 11조 5,561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간('03~'12)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56	10	11	15	11	2	10	30	27	15	7	5	13
인명피해(명)	426	-	-	1	-	-	8	177	51	163	12	-	14
재산피해(억원)	115,561	452	538	7,702	393	9	2,457	29,131	16,609	51,420	826	116	5,908

⇒ 그간, 5월은 다른 시기에 비해 자연재난 발생이 현저히 적은 편이었으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 가동 등 피해예방대책 추진이 필요함

강풍

- 최근 10년('03~'12년)간 5월에 강풍 피해는 총 2회로 9억원

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6~9월을 제외하고 강풍피해가 가장 적었음

※ 최근 10년간 총 35건 발생, 12명의 인명피해와 1,35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최근 10년('03~'12년)간 월별 강풍 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강풍/풍랑)	35	2 (0/2)	3 (1/2)	8 (2/6)	9 (7/2)	2 (2/0)	-	1 (1/0)	-	-	5 (2/3)	3 (2/1)	2 (1/1)
인명피해 (명)	12	-	-	1	-	-	-	-	-	-	11	-	-
재산피해 (억원)	1,355	110	120	411	363	9	-	42	-	-	127	101	72

● 세부 피해사례

- ('06.5.4~7) 호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7억원의 재산 피해

※ 순간 최대풍속(m/s) : 흑산도 30.7, 통영 25.3, 고산 24.4, 진도 23.4, 울릉도 22.5

- ('07.5.11~14) 강풍에 의해 경기지역 2억원 재산 피해

※ 순간 최대풍속(m/s) : 동두천 24.7, 문산 18.8, 이천 13.6

⇒ 강풍 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 사전보호 조치 등 철저한 상황관리 필요

황 사

- 평년('81~'10년)간 5월 황사 발생일수는 1.0일 이었으나, 최근 10년('04~'13년)간에는 1.2일로 증가되었으며,
- 평년('81~'10년) 기준, 월별 발생건수는 4월 → 3월 → 5월 순이고, 최근 10년('04~'13년)기준 3월 → 4월 → 5월 순이었음

【평년('81~'10) 및 최근 10년('04~'13)간 월별 황사 발생 평균값(단위:일) - 기상청】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81~'10)	6.1	0.2	0.1	1.8	2.4	1.0	-	-	-	-	-	0.2	0.4
최근10년('04~'13)	7.4	0.1	0.3	2.5	1.6	1.2	-	-	-	0.1	0.1	0.6	0.9

※ 황사일수 : 전국 17개 목측 관측지점 중 황사가 관측된 지점의 수를 전체 지점수로 나눈 평균값

- 세부 피해사례(황사농도 단위 : $\mu\text{g}/\text{m}^3$)
 - ('11.5.1~4)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 : 흑산도 1,015, 고산 731, 진도 662 등)가 관측되었음
 - ('08.5.29~31) 고비사막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 : 관악산 1,059, 백령도 967, 천안 994 등)가 관측되었으며, 기압계의 흐름이 느려 황사가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일 때
 짙은 황사 : $400 \sim 800\mu\text{g}/\text{m}^3$ 일 때 / 약한 황사 : $400\mu\text{g}/\text{m}^3$ 미만일 때

< 황사피해 유형 >

- ◇ 시정장애 초래로 육상, 해상 등 교통 운행 중단·지연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안질환, 심혈관계 질환 유발
- ◇ 비닐하우스 피복 작용으로 일사량이 감소하여 낙과율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
- ◇ 먼지바람으로 인한 도장작업 중단 등으로 인한 작업 소요일수 증가
- ◇ 이용객 감소로 인한 백화점, 할인점, 레저,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매출 감소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휴교 또는 단축수업 초래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엔진 등 정밀전자, 기계제품의 불량률 증가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유관기관 간 황사 관측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운영 필요

Ⅱ 중점추진사항

봄철 강풍에 대비 시설물 결박 등 피해 예방·방지대책을 추진하고, 황사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대응 체계 강화 추진

● 강풍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시설물 피해 방지

-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세부 대응·대처계획 수립 시행
- 강풍 특보시 공사장 크레인 운행정지·전도 방지를 위한 사전 보강 및 간판·조형물 등 옥외 시설물 결박 및 사전제거
- 특보 발효시 외출·외부 활동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방지 차원의 황사대응체계 구축

- 황사 피해 우려시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해당지역 학교 휴교령 전면 검토 실시
- 야외활동 및 행사금지, 옥외사업장 작업 일시 중단 권고 및 응급상황 대비 구급체계 강화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신속한 상황전파 등 황사대응체계 구축·운영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강화

—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사전대비 > —

- ◇ (협업관리) 협업기능을 활용한 여름철 재난관리 활성화
- ◇ (상황관리)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발령
- ◇ (시설보호) 취약시설 전수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 ◇ (교통대책) 취약도로 사전통제 및 대중교통 연계 운행체계 구축
- ◇ (물자동원)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민·관·군 긴급지원체계 구축
- ◇ (홍보강화)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 집중 실시



사회재난

※ 사회재난 분석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개정·시행(2.7) 이전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사고 등 인적재난을 대상으로 분석함

I

사회재난 분석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고와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등의 증가가 예상됨

5월중 사회재난 발생현황

- 최근 5년('08~'12년)간 5월중에는 127,879건(8.9%)이 발생하였음
- 5월 재난유형별 발생건수(월평균)는 전월(4월)에 비해 교통사고(1,246건), 산악(96건), 수난(46건), 농기계(17건) 사고 등은 증가하고, 화재(△530건), 산불(△54건) 사고 등은 감소함

【 최근 5년('08~'12)간 5월 사회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

구분	계	교통	화재	산불	해양	감전	붕괴	수난	산악	농기계	기타	
5년 전체	총건수	1,440,582	1,120,057	225,936	1,715	7,697	2,436	1,310	13,116	16,938	4,501	46,876
	5월	127,879	99,210	19,340	189	647	204	72	890	1,848	575	4,904
	월평균	24,010	18,668	3,766	29	128	41	22	219	282	75	781
5년 평균 (전월 비교)	4월	24,554	18,596	4,398	92	115	33	20	132	274	98	796
	5월	25,576	19,842	3,868	38	129	41	14	178	370	115	981
	증감	1,022	1,246	△530	△54	14	8	△6	46	96	17	185

※ 기 타 : 레저, 추락, 철도, 가스, 승강기, 환경오염, 폭발, 광산 사고 등

⇒ 산악사고, 영농기 농기계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활동이 요구됨

< 5월 발생 주요 사회재난 사례 >

- ◇ '12.5.5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화재(사망 9명, 부상 5명)
- ◇ '07.5.12 골든로즈호 충돌·침몰 사고(사망 16명)
- ◇ '05.5.15 경기 화성 입파도 근해 레저보트 침몰(사망 7명)
- ◇ '02.5.01 경남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사고(사망 9명, 부상 6명)
- ◇ '01.5.16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사망 10명, 부상 23명)
- ◇ '00.5.12 강원 강릉 진고개 관광버스 전복사고(사망 6명, 부상 33명)

놀이시설 안전사고

-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행사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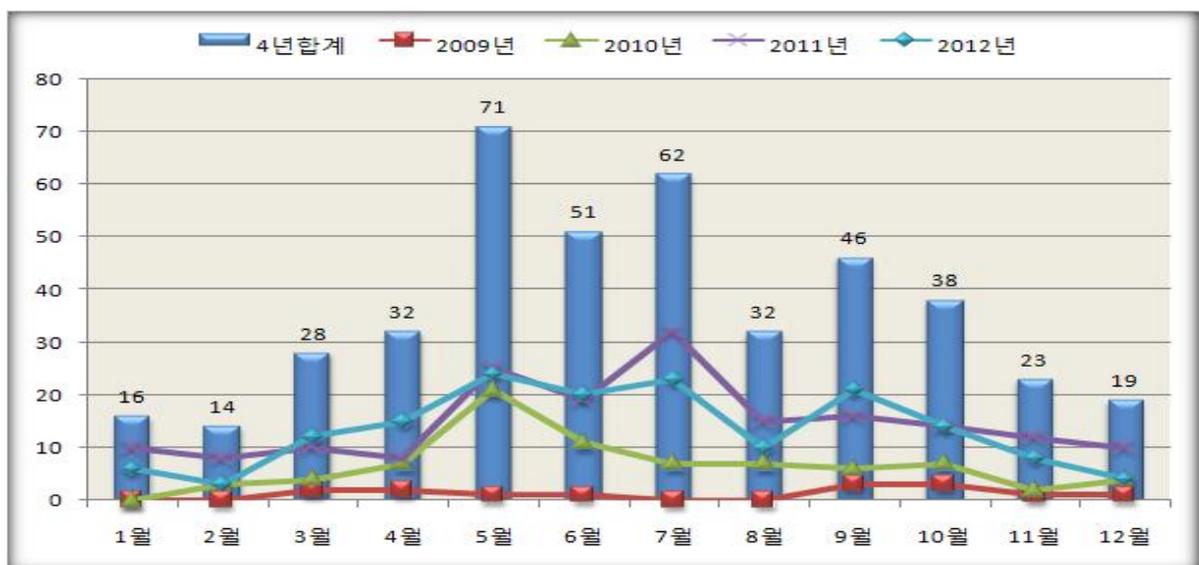
- 최근 4년('09~'12)간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432건 발생하여 357명(사망 4, 부상 353)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4년('09~'12년)간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 재난연감 】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합 계	사 망	부 상	
계	432	357	4	353	1
2009년	14	14	1	13	1
2010년	79	25	-	25	0
2011년	179	179	-	179	0
2012년	160	139	3	13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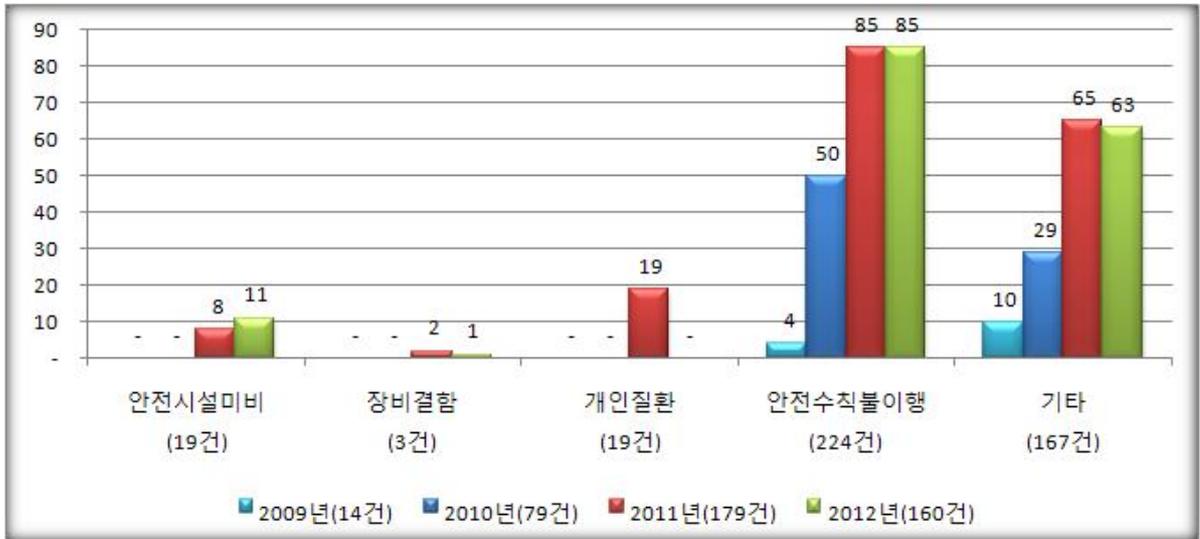
- 5월에 71건(16.4%)이 발생하여, 연중 가장 많이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 최근 4년('09~'12년)간 월별 놀이기구 안전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



-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 안전수칙불이행 224건(51.9%), 안전시설미비 및 개인질환이 각각 19건(4.4%) 등으로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원인임

【 최근 4년('09~'12년)간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원인 - 재난연감 】



●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 다중이용 102건(23.6%), 유원지 84건(19.4%)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 및 트램펄린장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설물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등이 요구됨

【 최근 4년('09~'12년)간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장소 - 재난연감 】

연도별	합 계	주거용 건물	다중이용	초고층 및 복합	도로	유원지	하천 호수	산	기타
계	432	17	102	13	31	84	13	2	170
2009년	14	-	3	-	-	7	-	-	4
2010년	79	5	7	-	-	16	10	1	40
2011년	179	8	53	8	31	38	3	-	38
2012년	160	4	39	5	-	23	-	1	88

●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단위 야외 나들이가 많고, 놀이시설 이용이 증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놀이시설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화

농기계 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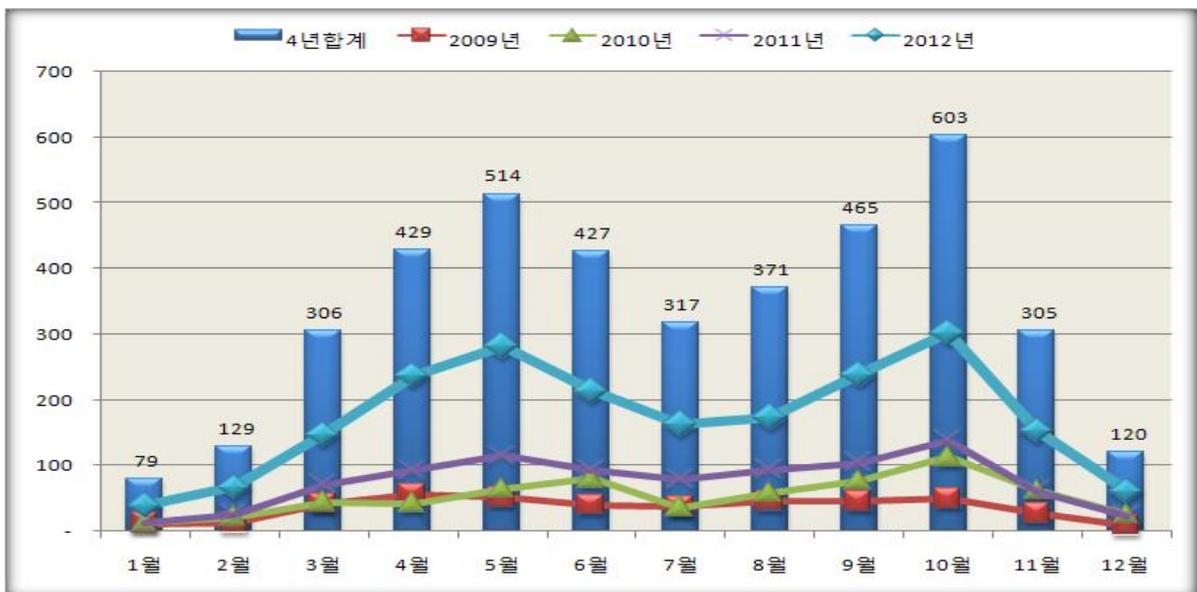
- 5월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는 4,065건 발생하여 4,012명(사망 354, 부상 3,658)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 재난연감 】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비고
		합 계	사 망	부 상	
계	4,065	4,012	354	3,658	
2009년	427	443	64	379	
2010년	644	601	60	541	
2011년	918	925	90	835	
2012년	2,076	2,043	140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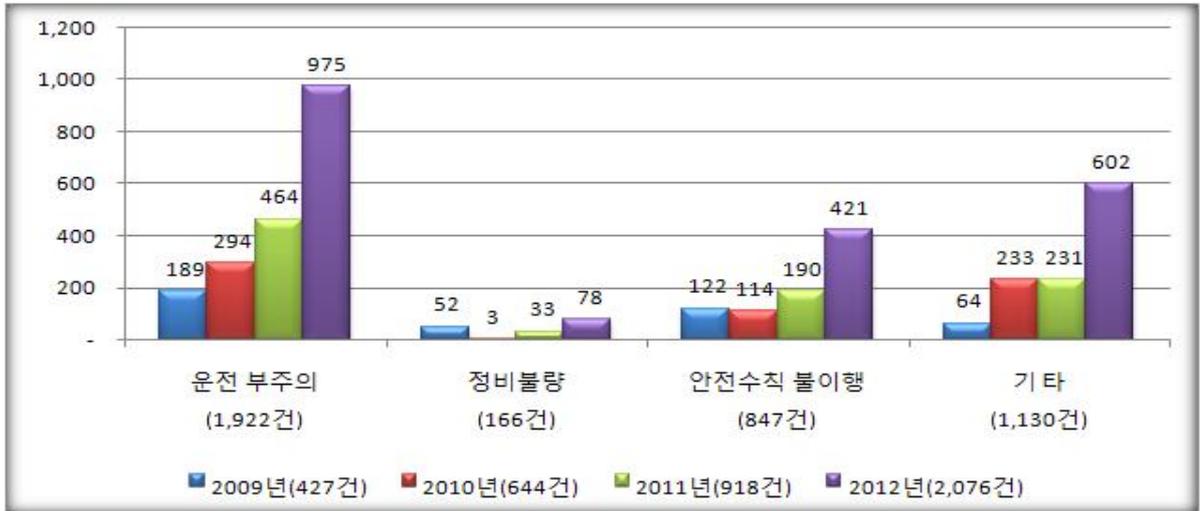
- 발생추이를 분석해 보면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하는 봄철과 농작물 수확기인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5월에 514건(12.6%)이 발생하여, 10월 603건(14.8%)에 이어 연중 2번째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4년('09~'12년)간 월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



-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운전부주의 1,922건(47.3%), 안전수칙 불이행 847건(20.8%), 정비불량 166건(4.1%) 등으로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관리미흡이 원인임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원인 - 재난연감 】



-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도로 1,480건(36.4%), 주거용건물 203건(5.0%)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에서 사고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장소 - 재난연감 】

연도별	합 계	주거용 건물	다중 이용	공사장	초고층 및 복합	도로	유원지	하천 호수	바다	산	교량	철로	공장	기타
계	4,065	203	15	57	3	1,480	3	28	7	133	5	1	43	2,087
2009년	427	16	-	-	-	203	-	2	-	11	-	-	4	191
2010년	644	13	-	1	-	248	-	3	2	30	-	-	1	346
2011년	918	48	11	31	1	261	-	14	-	37	2	1	26	486
2012년	2,076	126	4	25	2	768	3	9	5	55	3	-	12	1,064

- 5월은 영농준비를 위해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 이용이 증가하면서 조작미숙·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됨

⇒ 농기계 안전점검·정비, 운전자 안전교육, 등화장치 부착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홍보 강화

산악사고

- 최근 5년('09~'13년)간 5월 국립공원 탐방객은 2,316만명(11.6%)으로 10월 2,959만명(14.8%)에 이어 2번째로 많았으며, 주로 봄철(3~5월)과 가을철(9~11월)에 탐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음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월별 탐방객 현황(만명)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0,001	962	895	1,161	1,714	2,316	1,685	1,631	2,256	1,328	2,959	2,213	881
2009	3,551	181	174	219	360	437	281	280	437	211	475	349	147
2010	3,980	181	169	197	344	482	326	351	460	246	589	488	147
2011	4,079	172	176	221	353	451	326	333	469	294	645	450	189
2012	4,095	222	196	226	329	483	371	362	430	260	609	428	179
2013	4,296	206	180	298	328	463	381	305	460	317	641	498	219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미포함

- 국립공원에서 산악 안전사고로 1,740명(사망 110, 부상 1,630)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5월은 탐방객(2,316만명)이 연중 2번째로 많았고, 인명피해는 163명(사망 12, 부상 151)이 발생하여 연중 4번째로 많았음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월별 안전사고 사상자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740	101	103	75	80	163	133	113	197	166	315	188	106
사망	110	5	5	9	8	12	13	10	20	10	11	5	2
부상	1,630	96	98	66	72	151	120	103	177	156	304	183	104

- 발생원인을 분석해보면, 사망자 110명은 신체결함 45명

(41.3%), 추락 39명(35.8%), 익사 12명(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원인별 사망자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도별	합 계	추락	동사	탈진	신체결함	익사	천재지변
합 계	110	39	1	6	45	12	7
2009년	22	10	-	-	10	1	1
2010년	31	9	-	2	11	4	5
2011년	20	10	1	1	6	2	-
2012년	16	6	-	1	8	1	-
2013년	21	4	-	2	10	4	1

- 부상자 1,630명은 골절·상처 1,151명(70.6%), 탈진·경련·저체온 479명(29.4%) 순으로 대부분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였음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원인별 부상자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도별	합 계	골절·상처	탈진·경련·저체온
합 계	1,630	1,151	479
2009년	526	360	166
2010년	350	230	120
2011년	274	204	70
2012년	232	177	55
2013년	248	180	68

● 5월은 본격적인 봄철 산행철로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산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산로 위험요인 제거, 소방력을 활용한 등산목지킴이 활동 및 대국민 안전산행요령 홍보 강화

Ⅱ 중점추진사항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 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고,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대비 안전관리대책 강화

- 놀이시설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적극 홍보
-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고발생 대비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지역축제 행사장에 소방·경찰·공무원 등 안전요원 배치 등 상황 관리 체계 유지 및 사전 사고예방 홍보활동 실시

●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예방 안전대책 추진 강화

-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노후 농기계 무료정비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및 등화장치 부착상태 단속
- 농기계별 이용 안전수칙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산악사고 대비 안전관리대책 강화

- 산악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산로 위험요인 제거
- 소방력을 활용한 등산목지킴이 활동 추진
- 휴일 및 주말 주요 산행사고 대비 구급차와 구조·구급대원 배치
- 산나물, 약초 채취시 산악사고 대비 안전수칙 등 홍보 강화

소방활동

I 화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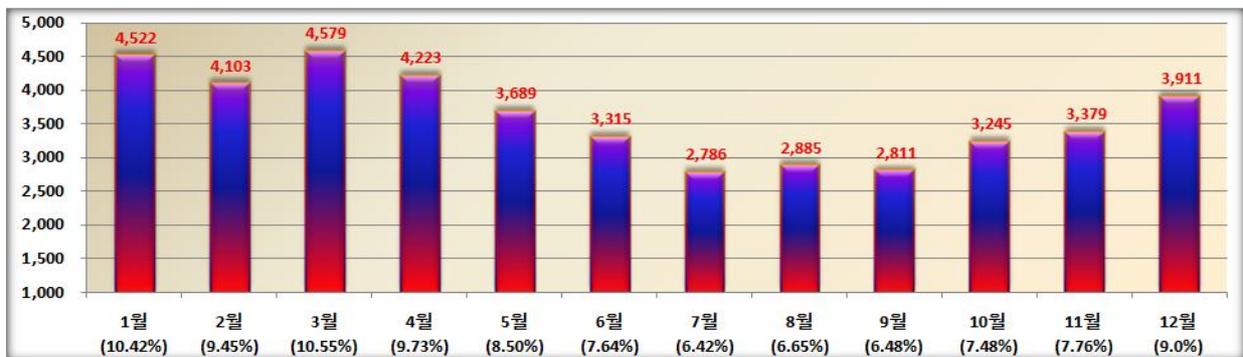
5월은 야외에서 가정행사가 많아 비주거지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의 연등행사 및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화재(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예방 대책 필요

● 최근 5년('09~'13)간 전국의 화재는 총 217,232건이 발생하여 8,418명(사망 1,243, 부상 7,175)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5월평균 화재는 3,689건, 인명피해는 183명이 발생함

※ 연도별 화재건수(5월) : '09년 47,318건(4,246건), '10년 41,863건(3,519건), '11년 43,875건(3,253건), '12년 43,248건(4,017건), '13년 40,928건(3,409건)

【최근 5년('09~'13)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 5월 중 화재는 평균 3,689건(총 18,445건)이 발생하여 30명(총 149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는 428억원(총 2,138)이었음

- 1일 평균 119건, 사망은 0.9명, 재산피해는 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구 분	화재건수 (평균)	인명피해 (사망)	재산피해 (억원)
5년 평균	3,689	30	428
13년 5월	3,410	32	1,225
12년 5월	4,017	29	286
11년 5월	3,253	17	187
10년 5월	3,519	19	252
09년 5월	4,246	52	188



- 발생장소는 야외소각 1,015건(27.5%), 주택 850건(23.0%), 자동차 456건(12.4%), 음식점·서비스 388건(10.5%) 등 순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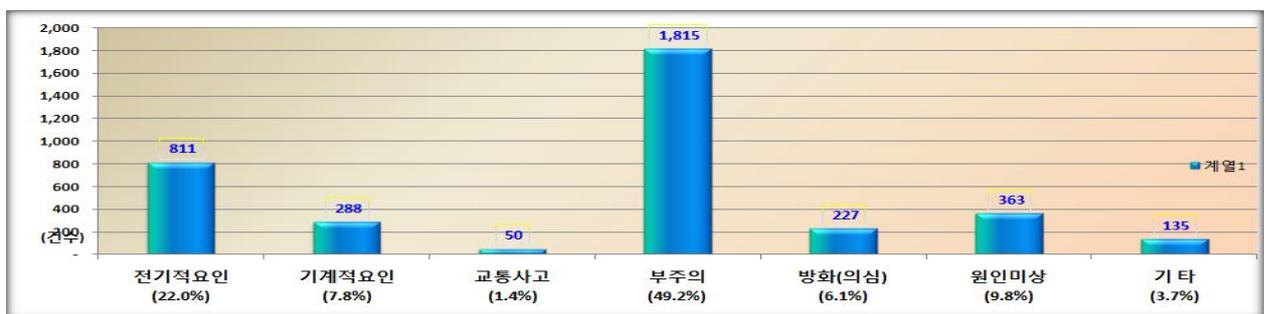
【 최근 5년('09~'13)간 5월 화재 발생 장소(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구 분	계	주택 (공동)	사무 판매	공장 창고	음식점 서비스	자동차	야외 (소각등)	동식물 시설	기타 건축물	기타
건 수 (평균)	3,689	850	183	311	388	456	1,015	111	190	185
비율(%)	100.0	23.0	5.0	8.4	10.5	12.4	27.5	3.0	5.2	5.0

- 원인은 부주의 1,815건(49.2%) 전기적요인 811건(22.0%), 원인미상 363건(9.8%)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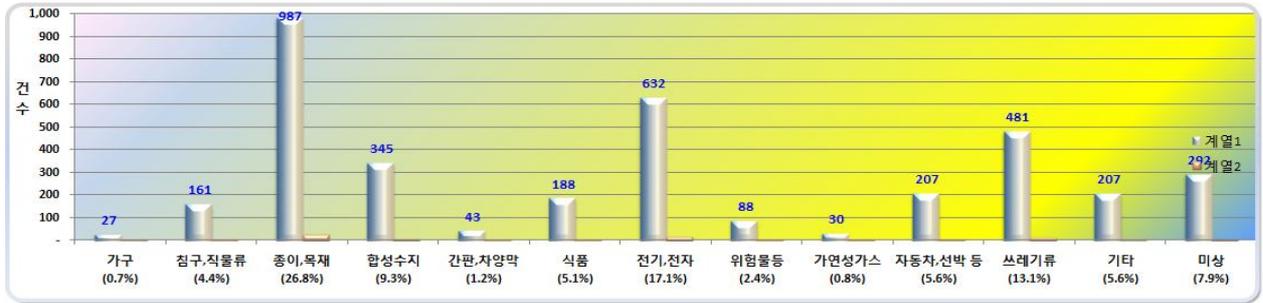
-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1,815건)는 담배꽂초 680건(37.5%), 쓰레기 소각 249건(13.7%), 음식물조리 245건(13.5%) 등 순임

【 최근 5년('09~'13)간 5월 화재 발생 원인(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최초 착화물은 종이·목재 987건(2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기·전자가 632건(17.1%), 쓰레기류 481건(13.1%), 합성수지 345건(9.3%)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09~'13)간 5월 화재 최초 착화물(국가화재정보시스템) 】



II 구조·구급 통계 분석

‘가정의 달’ 5월은 활발한 야외 활동과 각종 나들이 행사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와 안전 관리가 요구됨

- 최근 5년(‘09~’13) : 구조 20,413건/7,493명, 구급 127,763건 /131,624명
- 최근 5년간(‘09~’13) 5월 중 구조·구급 통계 분석 결과
 - 구조 출동건수(20,413건)는 전월(17,124건)에 비해 19.2%(3,289건) 증가
 - 구급활동(127,763건)은 전월(123,704건)보다 3.3%(4,059건) 증가, 병원 이송환자(131,624명)는 전월(119,487명)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5월 인명구조 활동은 화재, 교통, 산악사고 순 발생

구분	계	화재	교통	수난	폭발	기계	산악	자연재난	기타
건	20,413	2,515	2,069	285	10	233	674	45	14,583
비율(%)	100	12.3	10.1	1.4	0.0	1.1	3.3	0.2	71.4

- 5월 구급활동은 질병이 52.8%로 가장 높고, 사고부상이 21.8%를 차지

구 분	계	질 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의도성	기 타
인원(명)	131,624	69,482	14,686	28,734	7,881	10,840
비율(%)	100.0	52.8	11.2	21.8	6.0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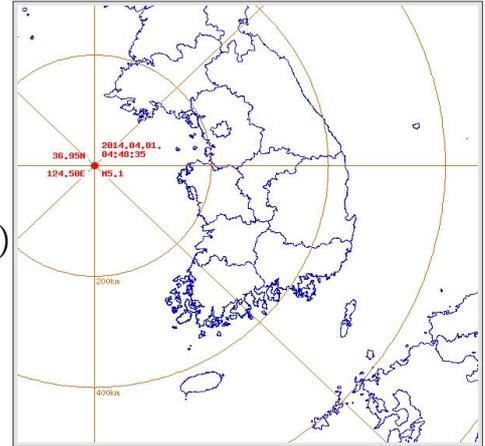
3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1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해역 지진

지진현황 : 규모 5.1

- 진원시 : 2014.4.1. 04:48:35
- 진 양 :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36.95 N, 124.50 E)
- ※ 여진(규모 2.3) 발생 1회 (09:25)



피해현황 : 피해 없음

- 흔들림 감지신고 : 243건(인천 150, 서울 73, 기타 20)
-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피해예측결과 : 인명 및 건축물 등 피해예상 없음

조치사항

- (소방방재청) 지진발생상황전파 및 중대본 가동(05:00~12:00)
- (지 자 체)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전남 지역대책본부 1단계 가동

< 2014년 한반도 지진발생 현황(4.28일 기준) >

- 발생현황 : 15회/최근 10년간('04~'13) 연평균 52회 발생
- < 규모별 > : 최대규모 5.1 ('14.4.1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규모	총	M < 3	3 ≤ M < 4	4 ≤ M < 5	5 ≤ M
횟수	15	14	0	0	1

< 지역별 > : 내륙지역 8회, 해역지역 7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북한
15	0	0	1	0	0	0	0	0	0	0	5	0	1	0	3	0	1	4

2 목포 신안 실크밸리 7차 아파트 공사장 도로 침하

■ 사고개요

- 일 시 : 2014. 4. 2.(수) 13:59경
- 장 소 : 전남 목포시 산정동 신안 실크밸리 7차 아파트 공사장
* 공사장 인접 신안비치 3차 아파트 단지내 도로
- 원 인 : 신축 아파트 흙막이가시설 붕괴(L=60m, H=10m)로
인접아파트 단지내 도로 침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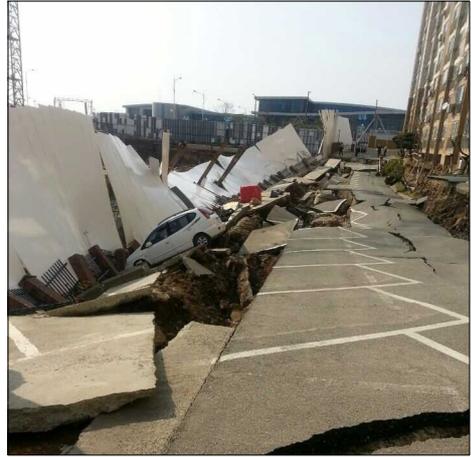
■ 피해현황

- 경상 1명(주민), 차량 1, 인접도로* 파손·침하(L=80m, B=7m)

■ 조치사항

- (목포소방서) 현장안전 조치 및 구조 활동 전개(4.2)
- (목포시) 아파트 주민 대피(375세대), 서부초등학교 강당 등
(4.2)
- (목포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아파트 안전성 검사 의뢰 결과, 이상없음
(4.7)
- (시공사) 응급복구공사 실시 및 이재민 주거대책비 지급(4.3)
- (시공사) 침하구간 응급복구공사(압성토 등) 완료(4.10)
- (입주자대표회의) LC안전연구소 안전진단의뢰 결과, 이상없음
(4.11)

■ 현장사진



3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내 S-OIL 원유 누출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4. 4. 4(금) 16:40
- 장 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68 S-OIL(주) 온산공장, 옥외탱크저장소[저장품명 : 원유(4류1석유류)]
※ 지름 84.75m, 높이 21.945m, 수용량 75만 배럴, 저장량 57만 배럴(90,573kl)
- 원 인 : 원유저장탱크 하부지점에 설치된 믹서기* 축이 원인 미상의 사유로 이탈되면서 저장된 원유 누출
* 믹서기 : 저장된 원유배합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

■ 피해현황

- 원유유출(15.4만 배럴), 해상유출 없음

■ 조치사항

- (온산 화학구조대) 유출된 기름을 폼으로 덮어 유증기 차단 (4.4)
- (해양경찰청) 최종 방류구 주변 해상 오일웬스설치(4.4)
- (해양경찰청) 해양유출대비 방제정 5척 인근 해상 배치(4.4)
- (에쓰오일) 탱크주변에 설치된 방유벽 내 저장된 유출유(15.4만 배럴)를 재처리 탱크로 이송(진공펌프·바큘카 등 이용)(4.8)
- (에쓰오일) 탱크내 잔류 원유(41.6만 배럴)는 인근 탱크로 이송조치 (4.8)



4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보령 기상해일

FOCUS 1

■ 사고개요

- 일 시 : 2008. 5. 4(목) 12:41경
- 장 소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 선착장 및 갯바위 위
- 원 인 : 기상해일
- 피해현황 : 인명피해 23명(사망 9, 부상 14)
 ※ 죽도선착장과 해안 바위지역에서 관광객 및 낚시객 7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 죽도에서 약 4km 떨어진 갯바위 지역에서도 2명이 높은 파도에 사망



<보령 사고현장 위치>



<보령 월전리 죽도 사고현장>

■ 발생원인

- 먼바다에서 국지성 저기압이 생기면 그 지역의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고 이 저기압과 함께 물결이 육지로 이동
- 깊이가 낮은 해안가에 이르면 큰 해일로 변하고 바닷가를 덮치는 '기상해일'이 됨

■ 피해예방 대책

- 해안가·갯바위 등 위험지역 접근 제한 및 낚시객 안전보호

장구 착용 등 홍보 강화

부산 부산진구 노래방 화재

FOCUS 2

▣ 사고개요

- 일 시 : 2012. 5. 5(토) 20:52 ~ 22:02(70분)
- 장 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15-3번지(3층)
- 구 조 : 철골철근 RC 슬라브(지상 6층, 지하 2층) / 연면적 3,987 m²
- 원 인 : 에어컨 전류과부하로 인한 전기배선 발화 추정
- 피해현황 : 인명피해 14명(사망 9, 부상 5), 재산피해 80백만원



〈화재 현장〉



〈화재건물 전경〉

▣ 다수 인명피해 발생 원인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통로가 미로처럼 된 구조
- 손님 대다수가 음주상태로 출입구를 찾지 못해 연기에 질식
- 노래방 룸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급속히 연소되어 대피로 차단
- 초기 자체 진화 실패 및 화재발생 사실 전파 지연

▣ 사고 발생 이후 대책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및 비상구 등 방화 시설 설치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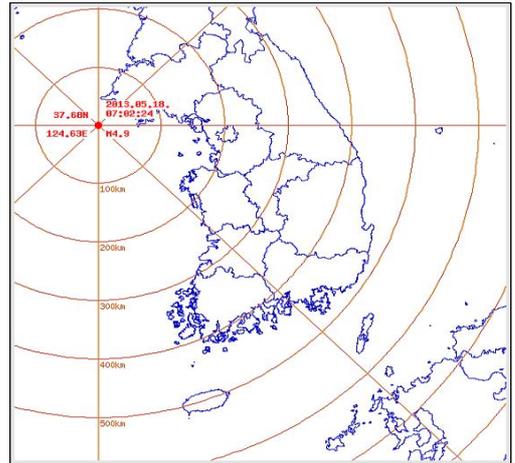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3년 인천 백령도 해역 지진

FOCUS 3

지진개요

- 일 시 : 2013. 5. 18(토) 07:02
- 진 양 :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 ※ 6차례 전진/여진 발생(규모 2.2 ~ 3.5)
- 규 모 : 4.9
 - ※ 1978년 국내 지진관측 이래 7번째로 큰 지진
- 피해현황 : 없음
 - ※ 백령도 건물 유리창 등 일부 진동 감지



주요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지진 발생지역 피해상황 파악 등

지진 발생 이후 대책

- 지진위험 관리를 위한 지진대책 추진
 - 활성단층지도 제작·관리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진대책 수립
 - 국가내진성능목표 도입, 내진설계기준 공통사항 정비, 지진방재 정책심의회 운영 등
- 기존 공공시설물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1 엘니뇨와 라니냐

1 개요

-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같은 적도 부근이라도 평상시에 서태평양(인도네시아 해역)이 동태평양(페루 해역) 보다 높음
 - 이는 적도부근에서는 무역풍(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표층의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에 모이고, 동태평양은 심해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올라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서태평양은 구름과 강수가 많고, 수온이 낮은 동태평양은 건조함
 - 하지만, 무역풍의 세기 등에 의한 영향으로 동태평양(페루 해역)의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가는 현상을 엘니뇨, 이 지역의 수온이 평소보다 내려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함
 -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 시계 추처럼 번갈아가면서 나타남
- ※ 스페인어로 엘니뇨(EI Niño)는 남자아이, 라니냐(La Niña)는 여자아이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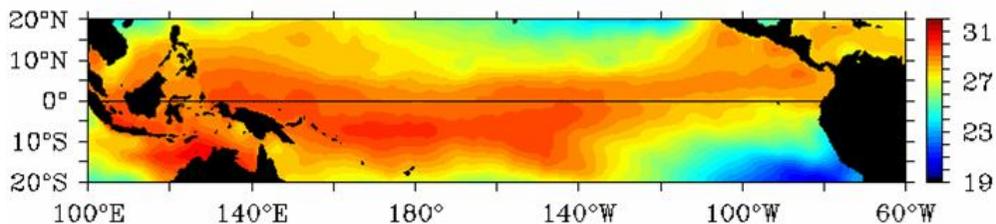


그림 1. 엘니뇨 발생시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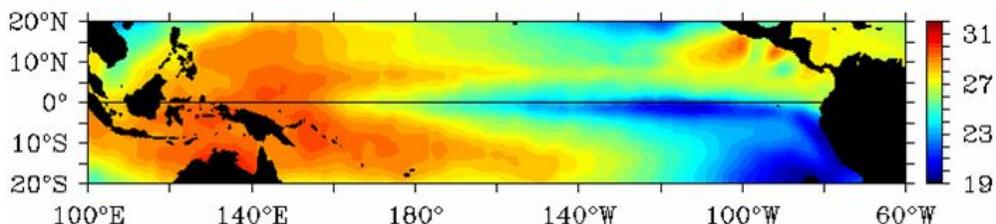


그림 2. 라니냐 발생시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분포

- 우리나라에서는 엘니뇨 감시구역(열대태평양 Niño 3.4* 지역: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의 편차가 0.4℃ 이상 (-0.4℃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 발달의 시작으로 봄

* 우리나라와 미국은 Niño 3.4 구역을 감시구역으로 하고, 일본은 Niño 3구역을 감시구역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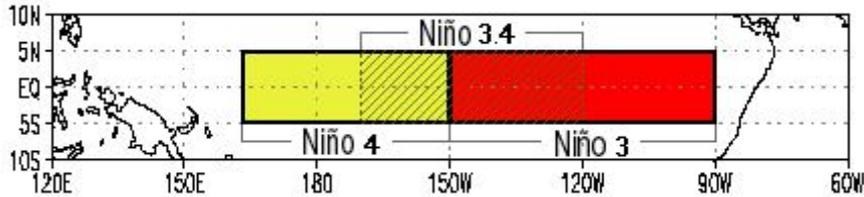


그림 3. 엘니뇨 감시구역

② 발생원리

< 엘니뇨 >

-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2~7년을 주기로 무역풍이 약해지면 난수층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 페루연안의 용승* 효과를 약화시켜 동태평양의 수온이 급상승하고 대류가 강화되어 잦은 호우 현상이 발생

*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 해수가 발산되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심층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



그림 4. 평상시 해양과 대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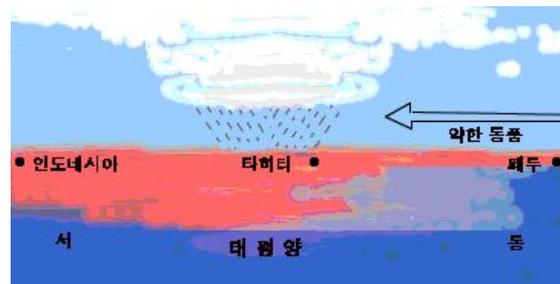


그림 5. 엘니뇨 발생시 해양과 대륙 상태

< 라니냐 >

- 엘니뇨와 반대로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나타남

3] 영향

■ 엘니뇨

- 수년에 한번씩 동태평양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1년 이상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
- 동태평양 남아메리카 서해안 일대에 호우가 빈발하는 등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전지구적인 대기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각지의 날씨에 영향을 줌
- 엘니뇨가 발생한 해의 겨울에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부, 미국 북동부,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고온이, 미국 남동부에는 저온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라니냐

- 엘니뇨와 반대로 동태평양 남아메리카 서해안 일대에는 대규모 고기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 맑은 날씨가 유지되며,
- 서태평양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져 홍수피해가 나타남

주요사례(1997/1998년 엘니뇨)

개요

- 1997년 4월에 시작하여 1998년 4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역대 가장 강한 엘니뇨로 기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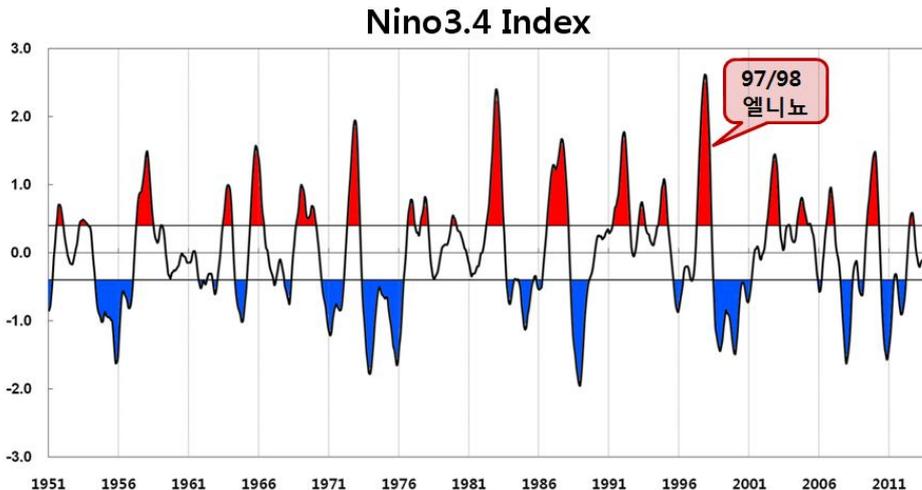


그림 6. 엘니뇨 지수

엘니뇨 발생에 따른 영향

- 1997년 가을부터 1998년 여름까지 알래스카, 캐나다, 북미지역, 남미 서부연안에서는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동부 연안, 지중해 부근의 유럽, 호주 동부, 동남아시아 일부, 일본 남부지역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편차**를 보였음
- 강수량의 경우 북유럽, 시베리아 지역, 동아시아, 티베트 서부, 미국 서부 및 동부 연안, 호주 북부에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였으며,
 - 캄차카반도, 인도 동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부 연안과 남부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 기상재해

시기	지역	재해원인	피해현황
1998.2.9	서울·경기	폭설	교통혼잡
1998.2.20	제주도	호우	-
1998.3.9~10	전국 곳곳	산불	45ha 산림이 불에 탐
1998.3.15	울산, 충남	산불	3ha 임야 불에 탐
1998.3.19	제주	폭풍	3명사망, 12명 실종
1998.3.29	강릉	산불	23억6천5백여만원의 재산피해
1998.4.21	강릉	폭염	-
1998.5.1~2	서울, 경기 및 경남지방	호우	정전사고 등 침수 피해
1998.7.31~8.2	남부지방	집중호우	95명의 인명피해, 414억원의 재산피해
1998.8.4	중부지방	폭우	121명 사망, 52명 실종, 1만 3천여 가구 침수, 5만여명의 이재민 발생
1998.8.15~16	경북 북부	집중호우	5명 사망 실종, 175ha의 농경지 침수

❏ 세계 기상재해

시기	지역	재해원인	피해현황
1997.중반~	칠레	홍수	20여 명 사망, 사회간접시설 파괴, 어획고 감소
1997.9~11	인도네시아	화재	30만ha 열대우림 파괴, 2000만 명이 호흡기 및 눈 질환에 시달림
1997.10~11	소말리아	홍수	1천5백44명 사망, 1백여 만 명의 이재민 발생
1997.12~1998.4	페루	폭우	3백여 명 사망, 수십만 명 이재민 발생
1997.12~	태국	산불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밀림 3040ha 전소
1998.1월 중순	브라질	산불	330만 ha의 초원과 열대림이 황폐화, 1만 2천 마 리의 가축 소실, 농작물의 30%가 불 탐
1998.1~4	인도네시아	화재	15만 5천 ha의 숲 파괴, 3억 1400만 달러의 피해액
1998.2.23~26	페루	홍수	15개주가 비상사태 선포, 화이콜로로강과 네 페나강 범람
1998.3.3	파키스탄	홍수	3백명 사망, 1천2백여 명 실종, 2만 5천여 명 이 재민 발생
1998.3	인도네시아	가뭄	10개월 쯤 계속된 가뭄으로 수천 명 사망
1998.4	필리핀	가뭄	최근 9개월간 계속된 가뭄으로 17명 아사, 3만 5천여 ha의 농사피해
1998.5.12~6.13	인도	폭염	3천여 명 사망

현재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0.4°C)이나
봄철까지 평년과 비슷한 정상상태를 유지, 하반기에 엘니뇨 발달 예상

현황

- 엘니뇨 감시구역(Nino 3.4, 5°S~5°N, 170°W~120°W)의 해수면 온도 편차는 +0.4°C로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그림 7. 좌)
- 열대 중태평양 해저 100~200m 부근에 형성된 고수온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그림 7.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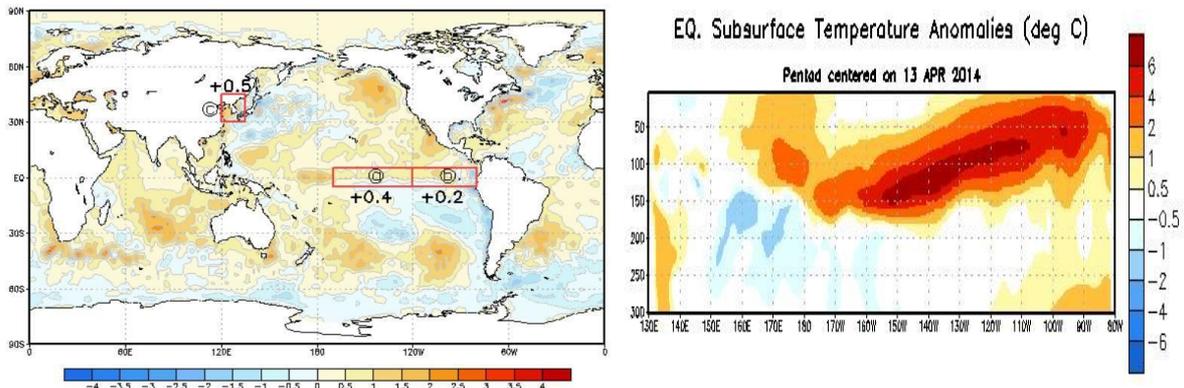


그림 7 (좌)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 편차 (4월 13~19일) 및
(우)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편차 현황 (4월 13일)

엘니뇨 전망

- 세계 유수 기관의 엘니뇨 예측모델(23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가능성(14개)과 정상상태를 유지할 가능성(9개)이 있는 것으로 각각 예측되었음
- 기상청의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의하면 봄철까지 정상상태를 유지하다가 점차 상승하여 8월부터 해수면온도 편차가 0.5°C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엘니뇨 예측모델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올 하반기에 현재 정상범위인 해수면온도 상태는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출처: 기상청 기후예측과

2 기상예보 용어

1 하늘 상태 표현

용 어	운 량	비 고
맑 음	0/10 ~ 2/10	기본 범주
구름조금	3/10 ~ 5/10	
구름많음	6/10 ~ 8/10	
흐 림	9/10 ~ 10/10	
변화 범주		없 음

※ 관측 위치에서 하늘의 구름양을 10할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로 표현

풍속 표현

용 어	바람강도(m/s)	비 고
바람이 약하다	4 미만	강풍주의보 기준
바람이 약간 강하다	4~9 미만	
바람이 강하게 불다	9~14 미만	
바람이 매우 강하다	14 이상	

*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 순간풍속 20m/s 이상

** 강 풍 경 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 순간풍속 26m/s 이상

강수 표현

용 어	강수량(mm)	비 고
범주로 직접 표현	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25 미만	
	25~50 미만	
	50 이상	

*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수량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 110mm 이상 예상될 때

** 호 우 경 보 : 6시간 강수량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 180mm 이상 예상될 때

강수확률 : 예보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통계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같은 기상 상태가 수 없이 반복될 때 일정량의 강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률로 표현한 것이며, “오늘 서울 지방의 강수확률 70%”라는 예보의 뜻은 서울의 어느 곳에서나 비가 올 가능성이 70%라는 뜻으로 서울의 총 면적 중 70% 가량의 면적에 비가 온다는 뜻도, 하루 24시간 중 비가 오는 시간 비율이 70%라는 뜻도 아님

황사 표현

용 어	농도($\mu\text{g}/\text{m}^3$)
열은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
짙은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미만
매우 짙은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때

빈도 표현

용 어	설 명
한때	예보로 지정된 기간 중 한·두 번(1/4 이하)
가끔	예보로 지정된 기간 중 대체적으로 단속적으로 반복할 경우(1/4초과~1/2이하)
계속	예보로 지정된 기간 동인 지속될 경우

적설 표현

용 어	적설(cm, 12시간 기준)	비 고
범주로 직접 표현	1 미만	대설 경보 기준(20cm)
	1~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경 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파고 표현

용 어	유의파고(m)	비 고
물결이 낮다	1.0 미만	풍랑주의보 기준(3m 초과)
물결이 약간 높다	1.0~2.0 미만	
물결이 높다	2.0~3.0 미만	
물결이 매우 높다	3.0 이상	

* 풍랑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 3시간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 풍 랑 경 보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 3시간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유의파고 : N개의 파 중에서 파고가 높은 N/3개를 선정하여 이들 파고를 평균한 파고로, 해상의 파고 상태를 나타내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장소 표현

용 어	범 위
해안(지방)	육지와 바다가 닿는 곳, 바닷가
내륙(지방)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해안을 제외한 육지
산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산간과 산악, 고산의 의미를 포함)
곳에(따라)	해당예보구역 중 불특정구역의 30% 이하 지역에서 비, 눈 등이 산발적으로 올 때, 또는 소낙성 강수현상이 있을 때 사용

* 산간, 산악, 고산 등의 표현은 사용 안함

날, 달, 계절, 해 표현

(1) 날

용 어	설 명
그제	어제의 전날('그저께'의 준말)
어제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작일, 어저께)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금일)
내일	오늘의 바로 다음 날(명일)
모레	내일의 다음 날(내일모레)

* 일계는 00시를 기준으로 24시까지로 함

** '오늘'에서 발표 시각이 00시가 아닌 경우는 발표 시각부터 24시까지임

(2) 달

용 어	설 명
지난달	이달의 바로 앞의 달
이 달	이번 달(이달, 금월)
다음달	바로 다음의 달(익월, '이듬달'의 순화)

(3) 계절

용 어	설 명
겨울	12월~2월
봄	3월~5월
여름	6월~8월
가을	9월~11월

(4) 해

용 어	설 명
제작년	지난해의 바로 전 해
지난해(작년)	올해의 바로 앞의 해
올해(금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해
내년	올해의 바로 다음 해
내후년	내년의 바로 다음 해

시제 표현

용 어	시 제
한밤	00시부터 03시까지
새벽	03시부터 06시까지
아침	06시부터 09시까지
늦은 오전(오전 늦게)	09시부터 12시까지
이른 오후	12시부터 15시까지
늦은 오후(오후 늦게)	15시부터 18시까지
저녁	18시부터 21시까지
늦은밤(밤 늦게)	21시부터 24시까지
오전	06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낮	09시부터 18시까지
밤	18시부터 24시까지

기온예보

용 어	시 제
아침 최저기온	03시부터 09시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03시 기온 제외)
낮 최고기온	09시부터 18시 사이의 가장 높은 기온 값(09시 기온 제외)

6 주요 언론보도 사항

I 금년('14년) 4월 언론보도 사항



이슈재난 관련 보도

- 04월01일(화) 서해상 규모 5.1 지진...서울도 흔들렸다(KBS)
역대 4번째 규모, 서해 단층 조사 서둘러 지진 가능성과 예상규모 파악 시
- 04월02일(수) 칠레 강진에 의한 쓰나미, 우리나라 영향은?(SBS)
3일, 쓰나미 일본과 한국(오전 남해안, 정오 서해안) 도달 예상, 일본열도를 지나 기세 꺾일 듯
- 04월02일(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KBS)
특수구조 건축물(중간 기둥없는 PEB공법 등)의 구조안정성 심의 의무화 및 습설하중 반영
- 04월04일(금) 기상이변 주범 '엘니뇨' 온다...피해에 철저한 대비 필요(MBC)
엘니뇨 현상 올 하반기 예측, 에너지수급과 농산물 타격줄 수 있어 사전대비 시급
- 04월05일(토) 전국 최대 벚꽃축제 안전불감증(KBS)
임시로 LP가스 설치 노점상 밀집, 소방차 진입도로 막는 등 화재위험 노출
- 04월06일(일) 한식(4.6), 건조한 날씨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산불(MBC)
주말(4.5~6일) 이틀동안 전국에서 모두 20건(5일 3건, 6일 17건)... 건조특보지역 확대 전망
- 04월09일(수) 건조특보 확대... 이번 주 산불 최대 고비(KBS)
최근 나흘동안 산불 41건.. 주말 전국 비 내리겠지만 다시 건조한 날씨 예상
- 04월10일(목) 메마른 산과 들, 전국이 불쏘시개...아차하면 큰 불(MBC)
전 국토 1/3 건조특보 발효, 오는 일요일 남부 비 내리겠지만 건조 해소엔 역부족
- 04월11일(금) 전국 가뭄 지수 '높음'...수도권 극심한 봄 가뭄(KBS)
전국 강수량 예년의 80% 수준, 지역별 평균 저수율 예년보다 10% 이상 낮아 농작물 피해 우려



이슈재난 관련 보도

04월11일(토) 기상해일... 4 ~ 5월 주의(KBS)

최근 10년간 서해남해에서 6차례 발생... 다음달까지 발생 가능성 큰 시기

04월13일(일) 농식품부,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628억 투입(SBS)

구온난화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628억원을 투입, 해안가 방조제 보수보강 계획

04월14일(월) 소방방재청, 개발도상국에 재난대응 정책 전수(KBS)

29일까지, 9개 개도국(방재담당 공무원) 대상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지역사회 도시방재 정책 등 교육

04월16일(수)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KBS)

일몰까지 시간이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

04월17일(목) 대통령,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방문...구조 독려(SBS)

구조 "1분 1초가 급해"...모든 인력과 장비 동원, 구조활동 총력 거듭 당부

04월18일(금) 구조된 학생 80% 이상이 심한 스트레스 증상(SBS)

의료진... 치료에 평균 4주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혀

04월19일(토) 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 검토(SBS)

국무총리는 내일 진도군청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선포 방안 논의

04월19일(토) 선령 20년 이상 노후 여객선 '수두룩'... 여객선 불안감 증폭(MBC)

남해안 여객선의 실태를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건조된지 20년이 지난 노후 선박

04월20일(일) 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SBS)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후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 최종 선포

04월20일(일) 국무총리, 실종자 가족과 면담...구조에 총력(SBS)

실종자 가족, 생존자 수색·구조에 총력 및 분향소 설치 등 요구...총리, 가족 요구에 따라..

04월20일(일) "제2사고 막자"...여객선 업계 운항 관리 꼼꼼히 챙겨(MBC)

승선 승객수 및 인적사항 확인, 출항 전 비상대피 안내방송 등 안전규정 챙겨..



자연재난 관련 보도

04월01일(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태안 5.1 지진 대비 비상근무(뉴시스) 소방방재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피해상황 파악 및 여진발생 대비 모니터링 강화
04월01일(화)	서울시, 여름철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등 정비(아시아투데이) 오는 6월말까지 98억원 투입, 매월 4일을 '빗물받이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등
04월02일(수)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내진설계 강화해야(아시아경제) 전문가, 저층·노후건축물 대비책 마련...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국가중요시설물→일반주택) 필요
04월03일(목)	다음주 4~5월 상순 덥다... 4월 중·하순 '이상고온' 가능성도(news 1) 기상청'1개월 전망'발표... 4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기온 평년보다 높음 전망
04월07일(월)	지진해일 안전지대 없다...가상실험 결과 충격(디지털타임스) 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 전 해안 지진해일 피해 무방비, 해안 방재림 조성 시급
04월09일(수)	기상청, 제1회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개최(뉴시스) 10개분야* 접촉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모색
04월12일(토)	광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합동 간담회 개최(아시아경제) 4.11, 응급복구 14개 협력기관 및 5개 자치구 참석, 기관별 신속 지원방안 논의
04월14일(월)	'병원 내진보강 전무' 국내 건축물 지진에 무방비(아시아경제) 내진보강기본계획 시행률 3년간 21.8%에 그쳐...건축물 3.1%, 병원 0%로 대책 마련 필요
04월15일(화)	국토교통부, 공원에 빗물 가두는 시설 설치 매뉴얼 발간(연합뉴스)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제작... 다양한 환경에 대응한 저류공원 설치 가능
04월16일(수)	대전 학교 2곳, 학교시설 첫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연합뉴스) 대전 새미래중학교,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장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학교시설로는 전국 처음으로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사회재난 관련보도

- 04월04일(금) 소방방재청, 10년간 식목일 산불 평균 10건 발생(YTN)
산불 잦은 식목일·한식, 119헬기 집중 투입해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체계 강화
- 04월05일(토) 소방방재청, 식목일·한식일 산불예방 119헬기 집중투입(뉴스시스)
전국 15개 항공대, 27개 소방헬기·230명 동원, 주요 등산로·공동묘지 등 초기 대응체계 강화
- 04월06일(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취임 후 첫 일정은?(아시아투데이)
재난상황실(정부서울청사) 방문, 각종 재난관리시스템 점검 및 적극적 초동대응 당부
- 04월06일(일) 소방방재청장, 울산 S-OIL 원유 누출사고 현장점검(연합뉴스)
4.6일, 사고처리상황 점검 후 사고처리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현장 긴급회의 주재, 조속히 사고처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전에 유의할 것 당부
- 04월07일(월)朴 대통령, “軍 무인기 파악 못해…추가도발 대비해야(머니투데이)
또한 “다양한 복합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지시
- 04월07일(월)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 마련(아시아경제)
어선 건조시 불연성 페인트 사용, 어선 자동위치발신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강화
- 04월09일(수) 국방부, 軍 인명피해 제로화·재산피해 최소화 추진(국방일보)
전군 재난관계관 700여명 대상, 재난관리체계 및 2014 안전한국훈련 준비 등 교육
- 04월10일(목)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 “음주운전 금물”(뉴스와이)
소방방재청, 음주 했거나 피곤할 때에는 충분히 휴식 취하고, 농기계 다룰 때 주의해야...
- 04월10일(목) 한선교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긴급구조 대상자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장치(GPS)와 와이파이를 강제작동 허용 추진
- 04월11일(금) 정부, 봄·가을철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뉴스시스)
그 간 소관부처별 대책을 봄(4~5월)·가을(9~10월) 각각 2개월씩 정해 통합, 집중관리
- 04월11일(금) 경북도, 고층건축물 유관기관 합동점검(뉴스시스)
4월말까지, 고층(11층 이상) 건축물, 유관기관(소방·건축·가스·전기분야) 합동점검 및 위법사항 시정·고발조치 등



사회재난 관련보도

- 04월13일(일) 소방방재청, 석가탄신일(5.6) 앞두고 전국사찰 화재예방 일제점검(연합뉴스)
연등 설치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사찰(1,850곳)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일제점검, 국보·보물로 지정된 주요 사찰 11곳 25동은 문화재청 등과 중앙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04월13일(일) 안행부장관,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안전점검(국제뉴스)
청소년 체험시설 등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 04월14일(월) 소방방재청,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희망의 전화) 운용(YTN)
7월부터 재난(풍수해·화재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심리상담 전용전화(1899-6365) 시범운영
- 04월15일(화) 소방방재청, 연약지반 매립지 안전점검 실시(뉴시스)
4.16~23, 부산 녹산국가산단 등 54개소 대상(7개 시도), 침하·붕괴 유무 등 확인
- 04월16일(수) 소방방재청, 진도 여객선 침몰 구조 소방헬기 11대 파견(뉴시스)
도 여객선 침몰사고 구조를 위해 소방헬기 11대 급파, 중앙긴급구조 통제단장인 소방방재청장 현장 출동 및 통제단 긴급 가동
- 04월17일(목) 국무총리, “무한 책임... 모든 능력 총동원”(YTN)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 사고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촌음을 아껴 구조 작업 지시
- 04월17일(목) 정부, 세월호 침몰사고 중앙재난심리지원단 구성·운영(파이낸셜뉴스)
교육부·여가부·소방방재청 등 범부처 공동 심리지원단 구성,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마련 계획
- 04월17일(목) 정부, 사고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연합뉴스)
세월호 침몰한 전남 진도와 해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예산지원 방안 등 검토
- 04월17일(목) 소방방재청, 공유수면매립지 안전점검(YTN)
23일까지, 전국 매립지(18곳) 시설물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점검
- 04월18일(금) 鄭총리,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 상주 지휘(연합뉴스)
4.18부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목포)에서 구조 지휘 및 부처 간 업무조정
- 04월18일(금) 소방방재청, 재난현장 긴급통신 장비 지원(뉴시스)
사고 조기수습 위해 전남도에서 지원요청... 이동형 기지국 및 위성송수신시스템 각 1대,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단말기 150대, 위성전화기 10대 등 지원



소방재난 관련 보도

- 04월01일(화) 소방방재청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 격려(중부매일)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태세 갖추어 국민안전 위해 최선, 현장 활동시 안전 사고 예방” 당부
- 04월01일(화)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충북혁신도시 시대 활짝(아주경제)
1일 준공식에 소방방재청장 등 참석, 정밀검사·품질관리·성능향상·정비 등 담당
- 04월01일(화) 중앙소방학교, 1일 제20기 소방간부후보생 입학식(아시아투데이)
소방간부후보생 30명(남 26, 여 4), 1년간 초급 소방간부가 갖추어야 할 실무 등 합숙교육
- 04월03일(목) 소방방재청, 충격 사고현장 노출 소방대원 심리검사(연합뉴스)
전국 소방대원 대상, 총 9개 항목* 83개 문항 설문... 전문가 분석방식으로 진행
- 04월05일(토) 소방방재청-대구시, 제11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연합뉴스)
4.9~11, 대구 엑스코 광장, 소방산업 신기술·제품 한자리에...17개 국가 243개 업체 참가제)
- 04월08일(화) 소방방재청, 제11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매일신문)
4.9~11, 대구 EXCO서 국내·외 17개국 243개사 참여, 최첨단 소방방재·안전 기술과 신제품 전시
- 04월08일(화) 소방방재청, ‘제1차 규제개혁 전체회의’ 개최(아시아투데이)
방재신기술·제품 판로지원 확대, 주유소 부대업무 면적 확대(500→1,000㎡) 등 35건 개선사안 결정
- 04월09일(수) 소방방재청, 프랑스와 항공구조구급임무 협력 논의(뉴스1)
한국-프랑스간 항공구조구급 임무 국제협력 발전방안 논의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 견학
- 04월09일(수) 소방방재청, 제8회 항공안전세미나 개최(아시아투데이)
4.9~10 대구 EXCO, 소방헬기 응급환자 이송 활성화방안 토론(국내외 전문가 150명)
- 04월12일(토) 경기소방재난본부, 가스계 소화설비 특별점검(news 1)
7월말까지 1,223개소*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성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적법성·적합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안전컨설팅 실시



소방재난 관련 보도

- 04월13일(일) 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아시아투데이)
산불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 원칙, 산불원인조사 및 사건처리 더욱 강화
- 04월14일(월) 5월 중순까지 고온현상 계속될 듯...산불·가뭄 우려(뉴시스)
5월 중순까지 기온이 높고 강수량 적어...산불위험 크고 봄철 가뭄 지속 우려
- 04월15일(화) 울산소방본부, 원유저장탱크 67기 안전 정밀진단(세계일보)
울산 S-OIL 온산공장 원유저장탱크 기름누출사고(4.4) 계기... 민·관합동점검
- 04월15일(화) 해양수산부, 굴·우럭·참돔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아주경제)
넙치·전복만 대상(본사업)이었으나, 굴·우럭·참돔 추가



이슈보도

- 5월06일(월) **차대통령, "어린이 꿈과 끼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 것"**(KBS 등)
91회 어린이날, 다문화가정·순직 군경소방관 자녀 등 어린이 250여명 청와대 초청 행사
- 5월07일(화) **국무총리, 대통령 방미기간 안보·안전강화 지시**(SBS)
군사 대비태세와 경계, 각종 사고와 재난 사전예방, 훈련기간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등
- 5월11일(토) **한국, 아·태지역에 재난구조기술 역량 과시**(KBS)
태국에서 대형재난 다국적 재난구조훈련, 22개국 참가, 우리나라가 기획하고 실행함
- 5월15일(수) **등산로에서 부상..."전봇대 먼저 찾으세요"**(SBS 등)
전국 850여만개 전신주에 쓰인 위치정보(위도·경도)번호로 구조활동 활용
- 5월19일(일) **119대원 폭행하면 소방활동 방해죄 '엄벌'**(KBS)
소방당국, 가해자에게 소방법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 벌금형' 엄벌



자연재난 관련 보도

- 5월07일(화)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사 확대(아주경제)**
KBS 등 6곳 → EBS·MBN·YTN·뉴스Y 등 4곳 추가, 재난방송 요청기관도 확대
- 5월08일(수) **울산시, 튼튼안전 365·재난알리미 설치 당부(이뉴스투데이)**
재난 등 비상사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시 비상대피시설 위치 확인을 위한 '앱' 설치 당부
- 5월09일(목) **소방방재청, "지진 견뎌 낼 공공시설물, 전체의 38.4% 수준"**(연합뉴스 등)
지난해 학교 등 244개소 1,783억원 투자 내진보강 결과, 38.4%인 48,805곳 내진성능 확보
- 5월11일(토) **해수부, 어항시설 보수·보강-8년간 9,815억원 투입(강원일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항 피해예방을 위해 방파제 등 83개 어항시설 보수·보강
- 5월13일(월) **해양수산부, 송어·멍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뉴시스)**
13일 송어·멍게 시범사업 실시, 울 하반기엔 뱀장어·미역 추가, '17년까지 27개 품목 확대



자연재난 관련 보도

- 5월13일(월) **날씨경영 뒤통스…수십억 경제효과(머니투데이)**
기상청, 기상정보를 경영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80개 기관·기업에 '날씨경영 인증'
- 5월14일(화) **소방방재청에 각국 사절단 방문 줄 잇는 까닭은?(뉴시스)**
도미니카(5.10), 바레인·터키(5.13) 장관 방문, 선진화된 재난관리 제도·시스템 관심, 도입희망
- 5월15일(수) **소방방재청장, 파주 재해구호 물류센터 현장점검(연합뉴스 등)**
신평 배수펌프장(고양), 군남 홍수조절지(연천)도 들러 풍수해대책 추진 만전 당부
- 5월15일(수) **국토교통부, 위기대비 전국 703개 건설현장 안전점검(연합뉴스 등)**
5.14~6.7일까지 민관합동점검반(867명) 투입, 절개지·흙막이 등 수방대책 중점점검
- 5월16일(목) **소방방재청장, 강원지역 재해위험지구 등 현장점검(연합뉴스)**
삼척 절골 재해위험지구 및 임원항 지진해일 대피지구 방문, 안전대책 철저 당부
- 5월16일(목) **중대본, 올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 돌입(국민일보)**
대책기간(5.15~10.15) 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지정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 5월16일(목) **전북도, 6월말까지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뉴스1)**
수해복구 완료율 95%, 아직 복구 중인 공공시설은 28건, 6월말까지 마무리 계획
- 5월16일(목)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위기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돌입(뉴시스)**
6.12까지 172개 주요 공사현장 대상, 점검 결과에 따라 위기 전 보수·보강 추진
- 5월17일(금) **소방방재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정답은 '민·관 협력'(아시아경제)**
대한건설협회 등 9개 단체 간담회, 기관별 재난지원 역할을 비롯해 효율적 협조체계 구축
- 5월17일(금) **행복청, 위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뉴스타운)**
5.20~6.5, 93개 건설현장, 급경사 절개지, 가설도로·가배수로 안전관리 실태 중점점검
- 5월17일(금) **중부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실 운영(뉴스1)**
10.15까지, 산사태취약지역 116곳 수시점검 및 대응 T/F팀 가동,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5월18일(토) **소방방재청, 인명피해 우려지역 2,768곳 지정(파이낸셜뉴스)**
여름 극한기상에 대비, 산사태 등 우려지역 전담관리자 4,368명 지정 특별관리



자연재난 관련 보도

- 5월18일(토) 제주 국립기상연구소, 기상 장기예측 국제조정사무소 설립(제주도민일보)
세계기상기구와 MOU 체결, 2개월장기예측(S2S) 연구활동 지원·조정 등 역할
- 5월19일(일) 백령도 부근 4.9 강진, 하루 최다 지진 기록(YTN)
18일 오전 7시 2분 규모 4.9 등 하루 10차례 지진 발생, 78년 관측 이후 6번째 강진



사회재난 관련 보도

- 5월02일(목) 정부가 만든 '스마트 안전귀가' 앱 인기(이데일리)
안행부, 앱 배포 5개월만에 9만6천건 기록, 사용자 이동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앱
- 5월02일(목) 국토부-아시아나, 항공안전 컨설팅 실시(데일리안)
아시아나 '17년까지 100대 보유에 따른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민·관 합동프로젝트 실시
- 5월02일(목) 서울시, 어린이 안전사고 체험으로 예방해요(뉴스와이)
5.1~3, 여의도공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몸으로 느껴보고 예방법을 배우는 체험행사
- 5월02일(목) 인천교육청,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직원교육 실시(뉴스1)
5.6~8일까지 실시되는 안전훈련 대응방법·요령 및 한반도 안보정세 등 안보교육 병행 실시
- 5월03일(금) 소방방재청장,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브리핑(연합뉴스 등)
중앙부처 등 407개 기관·단체 참여, 6~8일까지 전국에서 지진대비 민방위 훈련 등 실시
- 5월03일(금) 안전행정부장관, 서울 석관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연합뉴스 등)
이면도로 주차금지, 보행로 교통법규 준수, 안전 시설·장치 추가 설치 필요
- 5월03일(금) 가스안전공사, 제1회 사고조사 전문가 포럼 개최(에너지경제)
최근 가스사고 주요사례 발표,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 감축 강화 방안 토론
- 5월04일(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점 훈련은?(KTV)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출연, 6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 주요내용 소개
- 5월04일(토) 세계보건기구, 매년 보행자 27만명 교통사고 사망(YTN)
음주운전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포장과 지하도 개선 등 권고



사회재난 관련 보도

- 5월04일(토) 7일 여수산단서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가상훈련(경향신문)
여수산단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가정해 방제 및 주민대피 등 훈련
- 5월04일(토) 현대해상, 초등학생 통학실태 조사결과 발표(연합뉴스)
수요일(16.8%) 및 등·하교 시간(67.2%) 교통사고 많이 발생, 워킹스쿨버스사업 활성화 필요
- 5월04일(토) 탈북자 단체, 4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MBN)
북측은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경고, 경찰은 탈북자 단체 임진각 진입 통제 방침
- 5월05일(일) 소방방재청, 전국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뉴스천지)
5.6~8, 범국가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407개 기관이 태풍 등 499회 훈련 실시
- 5월05일(일) 소방방재청, 안전 이것만은 꼭!(서울신문)
아이들이 노는 데 열중하다 보면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 발생,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 필요
- 5월05일(일) 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옹벽 안전점검 실시(아주경제)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점검기동반 투입, 인천시 소규모 옹벽시설 안전점검 실시
- 5월05일(일) 교통안전공단-공군, 특장차량 안전위한 협약(노컷뉴스)
군용자동차의 안전도 강화 및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술지원 등 공동노력
- 5월05일(일)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해 교통안전 지킨다(뉴스천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127명 확대 투입 및 CCTV 409대 추가 설치 등 시설확충
- 5월06일(월) 소방방재청, 3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연합뉴스 등)
5.6~8까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407개 기관·단체 참여, 범국가적 재난대응 역량강화
- 5월06일(월) 소방방재청장,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연합뉴스 등)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지진·해일 대피훈련(5.7) 등 '2013 안전한국훈련' 최종 점검
- 5월06일(월) 경기도, 삼성 불산사고 계기... 유독물관리조례 추진(연합뉴스)
전국 처음 추진, 유해화학물질 누출·지속적인 민원제기 사업장 조사·공표 등 주요골자
- 5월06일(월) 새 원전의 지진·테러 대비는?(YTN)
준공 앞둔 신고리 원전 3·4호기, 규모 7.0이상 내진설계기준과 안전대응조치 적용
- 5월07일(화)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에 최우선 역점 두겠다(소방방재신문)
국민중심·현장중심 재난관리정책 추진,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통해 산업발전 모색 등



사회재난 관련 보도

- 5월07일(화) 소방방재청,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작(KTV)
6일부터 3일간 모든 재난상황을 가정해 범국가적 대응훈련 실시, 일정별 훈련내용 소개
- 5월07일(화) 공중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사각지대(뉴시스)
레포츠 체험시설로 각광 받고 있지만, 안전관리 규제체도가 없어 관련법령 제정 시급
- 5월08일(수) 국무총리,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참여(뉴시스 등)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참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음
- 5월08일(수) 안행부장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관(뉴시스 등)
여수산단 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선제적 예방 및 초기대응 등 피해최소화 당부
- 5월09일(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원청업체 책임 강화"(경향신문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하청근로자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 5월09일(목) 안전보건공단, 2013 안전보건 UCC 공모전 개최(노컷뉴스)
6.14일까지, 동영상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스마트폰 제작 UCC까지 장르 불문
- 5월09일(목) 한국수력원자력, "품질·보건·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템 구축(문화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도입 위해 품질 중심에서 안전·환경 등 추가
- 5월10일(금) 안전행정부,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문화일보)
키즈카페 및 미니기차·트랜펄린 등 신종 유키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행부로 일원화
- 5월11일(토) 소방방재청, 주간 안전사고 예보(뉴시스)
처님 오신 날, "안전(安全)의 등"을 올립시다! 연등 달 때는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
- 5월11일(토) 안행부, 지자체 안전총괄부서·특별사법경찰단 설치 당부(뉴시스)
5월 사·도 부단체장 회의, 안전관리 기능 총괄을 위해 안전총괄과 설치 등 지침·시달
- 5월11일(토) 충남도, 어항 안전시설 등 일제점검(뉴시스)
5.13~15, 어항 100곳, 어항 계류시설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및 구조장비 설치 등 점검
- 5월12일(일)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 수 연평균 2명꼴(뉴스천지)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사고 분석, 발생건수 감소 추세이나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 5월12일(일) 안전장구 없는 릿지 등반... 대형 사고 지름길(YTN)
전문기술 없어도 즐길 수 있으나 추락 시 위험, 헬멧·안전벨트·자일 등 장비 필수



사회재난 관련 보도

- 5월13일(월) 안전행정부 장관, 남한강 등 자전거길 현장점검(연합뉴스)
자전거길 안전펜스 등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당부
- 5월13일(월)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연대책임 물어야(경향신문)
산재 사망 대부분 하청업체·중소협력업체서 발생, 대기업에 연대책임 묻도록 제도 고쳐야..
- 5월13일(월) 인천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뉴시스)
12일 한강서 구명조끼 전시회 개최, 인명구조자원봉사자 등과 구명조끼 중요성 홍보
- 5월14일(화) 양119구조단, 항공기사고 수색구조관리자 교육(뉴시스)
5.13~24, 항공기 사고 대응절차 및 비상상황 가상훈련, 수색구조 탐색 등 실전교육
- 5월14일(화) 국토부·현대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아주경제)
안실련과 공동, 통학차량 보호기 '천사의 날개' 보급 등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 5월14일(화) 제주도, 해난사고 예방 해경함상 교육(뉴시스)
5.16, 해경청 등 6개 기관단체 142명, 어선화재 등 연근해 어선의 해난사고 예방 교육
- 5월15일(수) 서울시,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 밀집지역 환경 개선(아주경제)
10억원 투입, 16개소 생활기반시설·재난위험시설 D·E등급·보행안전시설 등 정비
- 5월16일(목)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발족(헤럴드경제)
구호협회 등 25개 민간단체·기업협회, 평시 예방활동 및 재난시 복구활동 참여
- 5월17일(금) 전력거래소, 전력IT 전원설비 기능점검 및 복구훈련(에너지경제)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및 전력거래시스템 장애 대비 비상복구훈련 및 비상전원 가동
- 5월17일(금) 울산시, 상반기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뉴시스)
5.16~6.28, 2,148곳, 교량 등 도로시설 위험여부, 옥상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현장점검
- 5월18일(토) 국토교통부,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고속도로 상황정보 제공(경향신문)
석가탄신일 연휴(17~19)기간 운영, 갓길 차선제·휴게소 정체관리 등 편의제공
- 5월18일(토) 부산해경, 특정해역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아시아뉴스통신)
10.15까지, 조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및 구명조끼 생활화 교육



사회재난 관련 보도

- 5월19일(일) 북, 동해 북동쪽으로 단거리 유도탄 3기 발사(조선일보)
국방부, 추가 발사 가능성 대비 대북 감시태세 강화, 전방지역 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 5월19일(일) 아이와 놀이공원 갈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아시아경제)
5월 연휴 맞아 놀이공원 인기, 안전사고 예방 위해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소개
- 5월19일(일) 레저기구 안전관리 허술...법령 미비(YTN)
번지점프 등 레저 스포츠 인구 증가, 시설에 대한 법 규정 없어 안전관리 허술
- 5월20일(월) 안행부 장관, 안성 화재현장-고속도로 안전대책 점검(머니투데이)
(안성화재) 안전하고 신속한 화재진압 및 사후관리 만전, (도로공사) 교통사고 최소화 당부
- 5월20일(월) 환경부, 유해가스 노출 환경보건센터에 순천향대 지정(아주경제)
불산 등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조사·연구할 보건센터 지정
- 5월20일(월) 서울시교육청, 교통안전 교원 연수 실시(이데일리)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전자 대상,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 5월20일(월) 경기도,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실시(아시아뉴스통신)
상하수도 공무원 및 시공업체 직원 대상, 질식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등 중점교육
- 5월21일(화) 전국 시·군·구에 안전총괄부서 신설(연합뉴스 등)
안행부, 시·군·구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 설치 지침 시행
- 5월21일(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 해양사고 잡아라"(세계일보)
해경청, 해양사고 빈번 5월, 해수욕장·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30% 줄이기 올인
- 5월21일(화) 인천항만청,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기호일보)
5.20부터 2주간, 시공 중 8개소와 국가 연안항 항만시설물 8개소 선제적 안전점검
- 5월21일(화)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충청투데이)
5.23일 59개 공동주택관리자 140여명 대상, 주택단지 내 사건·사고 안전관리방안



소방재난 관련 보도

- 5월02일(목) **경기소방본부, 최첨단 재난통합지휘차량 도입(경인일보)**
대형 화재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되는 현장 소방작전 지휘, 위성 영상송출시스템 등 구축
- 5월03일(금) **소방방재청, 퇴직 소방공무원 경찰병원 진료비 무료(뉴스1 등)**
20년 이상 재직자 대상,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 시 30% 경감 등 예우 강화
- 5월03일(금) **직원들의 안정, 재충전 기회 제공, 우울증 예방으로 고품격 소방활동 기대**
직원들의 안정, 재충전 기회 제공, 우울증 예방으로 고품격 소방활동 기대
- 5월04일(토) **소방방재청, 주택화재 확대 막은 중학생에 청장 표창장 수여(국민일보)**
충북 영동중 허남웅, 지난 1일 체육활동 중 주택화재 발견, 학교 소화기로 초기 진화
- 5월06일(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뉴스천지)**
5.7~9일까지, 소방안전체험관·안전의식향상관 등 운영, 어린이 불조심 그림 그리기 대회
- 5월07일(화) **소방방재청, 대한민국소방안전박람회 8일부터 개최(파이낸셜)**
8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국내유일 소방안전산업 전문전시회 개최(15개국 774부스)
- 5월08일(수) **서울시, 문화재·사찰 187곳 소방점검(YTN)**
5.13까지, 소화기와 비상경보기 작동여부,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5월08일(수) **세종소방본부, 5월말까지 안전대책 팔 걷어(아주경제)**
폐기물 사업장 사고방지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관리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5월09일(목) **소방방재청,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연합뉴스 등)**
대구 엑스코에서 10일까지, 국내·외 총 15개국 216개 업체 참가, 소방산업기술 전시
- 5월09일(목) **제주 소방방재본부, 제1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뉴스제주)**
6.26까지, 안전한국 실현을 목적으로 안전분야 가치를 높인 기업, 개인 및 단체 대상
- 5월10일(금) **소방방재청-이화여대, 소방관 건강연구 업무협약(뉴스시스)**
소방관 스트레스가 신체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MRI 등 첨단장비를 통해 분석



소방재난 관련 보도

- 5월10일(금) 10돌 맞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10일까지 엑스코서 개최(서울경제)
소방·방재·안전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제품 전시, 10돌을 맞아 양질적으로 크게 성장
- 5월10일(금) 산림헬기 임하댐 추락해 조종사 2명 실종, 수색 구조대원 숨져(매일경제)
9일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2명 수색작업 중 영주소방서 소속 박근배 소방장 순직
- 5월10일(금) 강원소방관, 5.8%가 외상후 스트레스 위험군(경향신문)
강원도 소방관 1993명 PTSD 검진 결과, 115명(5.8%) 위험군, 그 중 5명 PTSD 진단
- 5월10일(금) 대형화재 주범 '샌드위치 패널', 해법은 없나?
외부 철판이 물의 침투를 막아 진화 어려움, 규제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병행해야...
- 5월11일(토) 인천소방본부, 여름철 물놀이지역 사전 안전점검(뉴스타운)
5.13~31, 을왕리 등 25개소, 안전시설 정비·확충, 위험구역 설정·운영, 안전요원 확보
- 5월12일(일) 순직 영주소방서 박근배 소방위 영결식 엄수(연합뉴스 등)
5.9일 임하댐 헬기추락 실종자 수색 중 순직, 소방방재청장 참석, 옥조근정훈장 추서
- 5월12일(일) 소방방재청장, 영주소방서에서 관서장 회의 주재(뉴스 1)
임하댐 헬기추락 실종자 수색과정에서의 소방관 순직 관련, 재발방지 등 당부
- 5월12일(일) 소방방재청, 제1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성료(뉴시스)
15개국 참가, 해외바이어 163명 등 65천여명 관람, 신기술 등 해외 판로개척 효과
- 5월13일(월) 충북소방본부, 소방장비 점검 실시(충청투데이)
5.13~24,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장비 관리상태 및 조작능력 등 중점 점검
- 5월14일(화) 강원소방본부, 폐기물 처리시설 소방조사(강원도민일보)
5.30까지, 폐기물 취급시설에 대한 실태과약 및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관서 공조체계 구축
- 5월15일(수) 세종소방본부, 석가탄신일(5.17) 화재 경계 만전(뉴시스)
5.16~18일까지 28개소 사찰 및 문화재 대상, 화기취급 등 위험요인 현장확인



소방재난 관련 보도

- 5월16일(목) 서울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뉴스1)
8.30까지 나이트클럽 등 6,713곳 대상,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 5월18일(토) 강원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강원본부와 상호업무 협약(강원일보)
전기공사 긴급출동 관련 신고와 이첩상황, 민원처리 결과 등 양 기관 공유
- 5월20일(월) 세종소방본부,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충청투데이)
5.24까지, 수변안전요원 등 20명, 물놀이 장소 배치, 안전사고 예방대응 활동 수행
- 5월20일(월) 충남 아산소방서, 농번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뉴스시스)
농기계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적절한 휴식, 작업 후 반드시 점검정비 등 당부
- 5월21일(화) 소방방재청, 전국 소방지휘관 워크숍 개최(연합뉴스 등)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 250여명 참석, 국정철학 공유 및 소통·화합
- 5월21일(화) 부산소방본부, 119시민수상구조대 가동(뉴스시스)
5.20~9.17까지 해운대·광안리 등 7개 해수욕장에 170명 배치, 피서객 안전확보

강풍 대비 행동요령

평상시

-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입간판,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 지붕 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임시시설,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에 대하여는 결박 및 보강조치를 취한다.

황사 대비 행동요령

황사 예보 때 대처방법

1. 가정에서는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한다.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한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는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한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한다.
- 외출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한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는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교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한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휴교 조치 시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한다.

3. 축산·시설원예 등을 하신다면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한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한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한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는다.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

1. 가정에서는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간다.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한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는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교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3.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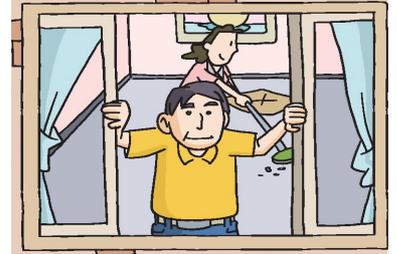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한다.
- 야외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는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는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 대처방법

1. 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준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한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한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한다.

3.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씻거나 소독을 한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준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유무를 관찰한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한다.

황사 주의보·경보 발령기준

-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PM10 : 직경 $10\mu\text{m}$ 이하의 입자상태 물질

놀이기구별 안전 요령

그네

-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린다.
- 그넷줄을 꼬지 않고 탄다.
- 다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거나 그 앞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 그네 중앙에 앉아서 탄다.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한 그네에 한 사람만 타고, 두 명이 한꺼번에 타지 않는다.
- 줄을 꼭 잡고 타며, 타는 도중 뛰어내리지 않는다.

미끄럼틀

-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 하나씩 올라간다.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 미끄럼판에서는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온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 부딪치지 않게 빨리 비켜 준다.
- 가방, 장난감을 들고 타지 않는다.

흔들놀이기구

- 시소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는다.
-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내린다.
-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는다.

회전놀이기구

-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지 않는다.
- 회전중에친구와장난(예: 밀기)하지않는다.
- 회전대를갑자기고속으로 회전하지않는다.
-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지 않는다.
- 회전대를 발로 돌리지 않는다(발이 끼일 위험).
-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글짐·오르는 기구

- 오를 때는 두 손을 사용하고 손잡이를 꼭 쥐고 이용한다.
- 시설이 비에 젖었거나 뜨거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 꼭대기에서 눕거나 앉지 않는다.
- 꼭대기에서 거꾸로 매달리거나 걸터다니지 않는다.
-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내려올 때 뛰어내리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천천히 내려온다.

건너는 기구

- 받침대를 두 칸씩 한꺼번에 지나가지 않는다.
- 흔들다리 위에서는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하며, 절대 뛰어가지 않는다.
- 흔들다리에서는 손잡이와 받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행동은 절대하지 않는다.

공중 놀이기구

- 좌석형 공중 놀이기구는 서서 타지 않는다.
- 정해진 인원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다.
- 타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지 않는다.

조합 놀이대

- 조합 놀이대는 미끄럼틀,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조합된 놀이기구이므로 조합된 기구의 안전요령을 참고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 공통사항

●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 ✚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있게 한다.
- ✚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한다.
- ✚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둔다.
- ✚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한다.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 ✚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않는다.
- ✚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한다.
- ✚ 긴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넣거나 묶는다.
- ✚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한다.

● 농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하자



- ✚ 점검·정비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다.
- ✚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한다.
- ✚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않는다.

● 논·밭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 ✚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한다.
- ✚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한다.
-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한다.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한다.
-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한다.
-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한다.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한다.
-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논 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한다.
-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는다.
- ✚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한다.

☐ 농기계별

● 경운기·관리기



- ✚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한다.
- ✚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는다.
- ✚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한다.
- ✚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 ✚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한다.

● 트랙터



- ✚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
- ✚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한다.
- ✚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한다.
- ✚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 콤바인



- ✚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한다.
- ✚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다.
- ✚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한다.
-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한다.

● 휴대형 예초기



- ✚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 제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산악사고 예방요령

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 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한다(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한다(Care).
-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 의식확인 ② 호흡확인 ③ 맥박확인 ④ 출혈확인 ⑤ 얼굴색 ⑥ 체온·피부 상태 확인 ⑦ 골절확인 ⑧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⑨ 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처치 지혈 상처·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 셋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간다.
-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인 쇄 : 2014년 4월

발 행 : 2014년 4월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실장 : 임현우 / 팀장 : 이경자 / 담당 : 최무진)

전 화 : 02)2100-5034

팩 스 : 02)2100-5039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11호

인쇄처 : 제일기획 02)2269-8900
